

學校圖書館의 圖書配架

金 斗 弘
(韓國圖書館協會 企劃部長)

序 言

우리 나라에 現代教育學의 理念에 立脚한 學校圖書館이 移植된지 10數年이 되었으나 아직 온전히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이것이 살아 날 것인지 말라 버릴 것인지 不安이 가시지 않는다.

施設이 不充實하지만 그것 때문만은 아니며, 職員이 한에 차지 않지만 그것 때문만도 아니다. 資料가 不足하지만 그것은 머지 않아 절로 풀릴 터이고, 整理技術이 未熟하지만 그 또한 크게 근심스러운 일은 아니다.

우리의 學校圖書館이 사름을 할 것인가 못 할 것인가 늘 不安해 하는 까닭은 學校圖書館의 個個의 奉仕가 學校教育活動 하나 하나에 깊숙히 뿌리를 내리지 못한 데 있는 것이다.

筆者는 數年 동안 이 原因을 더듬어 보았다. 一線圖書館들의 運營狀況을 觀察하기도 하고, 一線司書들과의 討議도 가지고, 또 그들의 報告書들을 檢討하기도 하였다. 結論은 다음과 같다:

大部分의 學校管理者나 教師나 그리고 司書들은 「教育」과 「圖書館」 둘 중에서 어느 한 쪽에 關한 知識과 理解가 알아서, 이 兩者를 連結지우는 일에 失敗하고 있었다. 教育을 아는 사람은 圖書館을 잘 모르고, 圖書館을 아는 사람은 教育을 잘 모르고 있었다.

學校圖書館은 學校의 基本的 教育施設이다. 따라서 모든 敎職者는 그것을 教育的으로 活用할 수 있는 技能을 가져야 한다. 學校圖書館의 目的은 學校教育目的의 達成에 이바지하는 데 있다. 따라서 모든 學校司書는 學校教育이 무엇인가를 밝게 알아야 한다.

筆者는 本講座를 通하여, 學校教育活動과 圖書館奉仕 間에 벌어진 겹을 메우는 方法들을 示唆할 수 있도록 努力하고자 한다.

A. 圖書配架의 뜻

圖書配架라 함은, 整理過程을 거친 個個의 圖書를 미리 세워진 計劃에 따라서 書架에 配列하는 作業을 말한다.

圖書配架作業은 圖書整理作業의 延長으로도 볼 수 있다. 그러나, 配架의 段階로 넘어 온 圖書는 閱覽에 直面하여 있고, 또 이미 閱覽에 提供되어 있는 圖書도 있으므로, 이 作業을 圖書運用的 한 部面으로 보아도 좋을 것이다.

B. 圖書配架의 要領

1. 圖書는 全體적으로 左에서 右로 配架한다.
2. 單位書架別로 各段(선반)마다 左에서 右로, 上段에서 下段으로 配列한다. (第1圖參考)
單位書架라 함은 선반의 길이가 90cm(3尺) 되는 書

架의 한 區劃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書架의 段數는 問題 삼지 않는다. 6段의 單位書架도 있고, 5段이나 3段의 單位書架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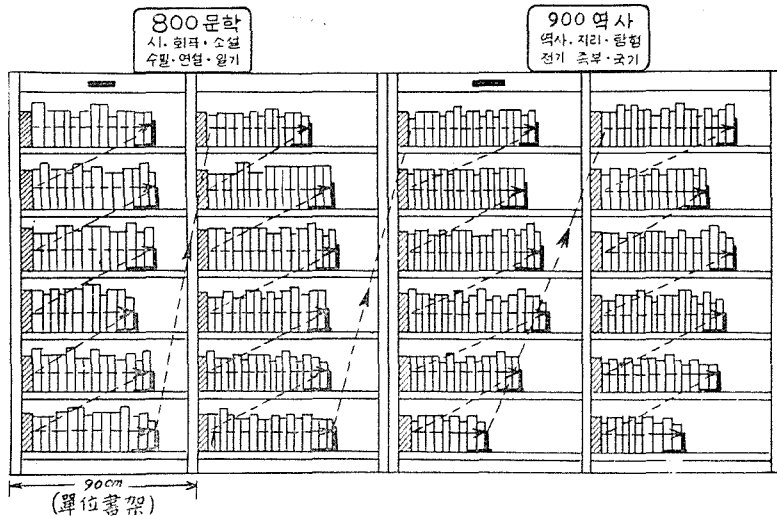
3. 먼저 分類番號順으로 配列하고, 同一 分類番號 안에서는 圖書記號順으로 配列한다.

보기)	027	027	027	027	027.2	027.6	027.6
	경	삼	삼	장	창	명	천
		1	2				

4. 圖書는 선반의 前面에서 1cm 가량 안쪽으로 넣어서 등을 가지런히 맞추어서 配列한다. 圖書가 書架의 背板에 닿도록 밀어 넣지 않는다.

5. 分類表上의 主類 卽 最初の 10區分이 바뀌어질 때마다 書架를 달리하는 것이 原則이다. 小規模의 學校圖書館에서는 이 原則을 지키기가 어려울 것이다.

6. 圖書의 配列은 餘裕 있게 하고, 各段(선반)마다 복엔드(book end)를 使用하여 책이 넘어지지 않도록 한다.



(第1圖)

圖書는 ...→의
方向과 順序에
따라서 書架에
配列된다.

5, 6册 더 꽂을 수 있는 餘裕를 남기는 것이 普通이며, 사람에 따라서는 선반의 1/3 길이를 남겨 두는 것이 좋다고도 한다.

C. 特殊集書의 配架

圖書는 一般의 前所述한 配架要領에 依하여 配列된다. 그리고, 書架配列의 單純化의 原則에 비추어서도 多數의 特殊集書를 만들어서 配架의 一般의 順序를 어기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 그러나, 效果的인 圖書運用을 爲해서 또는 學校種別이나 地域社會의 特殊性에 따라서 多少의 特殊集書를 構成하여 別途로 配架하는 것은 必要한 일이라고 본다.

學校圖書館에서 一般의 組織되는 特殊集書와 그 配架要領은 다음과 같다.

1. 參考圖書

말 辭典, 일 事典, 圖鑑, 年鑑, 各種 統計集, 地圖帖 等 參考圖書는 一般圖書와 같이 分類한 後에 別途의 書架에 集中配架한다.

이 集書는 參考奉仕의 便宜를 爲하여 閱覽室의 컨트로울 포인트인 카운터 가까운 곳에 두는 것이 좋다. 圖書館이 別館 上下層으로 되어 있을 境遇에는, 레디 레퍼런스(ready reference)의 效果를 増大시키기 爲하여 下層에 配架하는 것이 좋겠다.

參考圖書가 다른 書架에 흩어지는 것을 막기 爲하여 책등의 請求番號 옆쪽에 'Reference books'의 <R> 혹은 「참고 도서」의 <참> 따위 記號를 달아 준다.

보기)	R	R	R
	031	103	903
	중	보	오

2. 低學年用圖書

國民學校의 境遇에, 그림책 따위 低學年用의 圖書는

主題別로 分類하지 않고 (分類番號를 配定하지 않고) 카운터 높이의 낮은 書架를 利用하여 集中的으로 配架한다. 책의 華麗한 表紙가 보이도록 雜誌架 같은 것에 陳列하여도 좋다.

책등에 'Easy book'의 <E> 또는 「저학년」의 <저> 등 記號를 달아 준다.

3. 大型圖書

A4版(菊倍版) 크기 以上의 圖書는 普通의 書架에 配列하지 못한다. 그래서, 책을 가로 눕혀서(책등이 위로

올라 가도록) 請求番號上의 正位置에 그대로 配列하는 수도 있으나, 一般의 으로는 該當 書架의 最下段을 미리 넓게 잡아 두었다가 그 곳에 配列하거나, 大型圖書를 爲하여 特別히 마련한 大型圖書架에 配列하게 된다. 이 세 가지 方法中 後二者의 境遇에는 請求番號上의 正位置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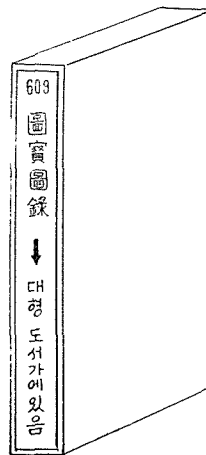
에 代冊板을 두어서 該當圖書가 別途로 配列되어 있다는 것을 案内하여 주는 것이 親切하다.(第2圖 參考)

그리고, 책등의 請求番號 위에 '대형 도서'의 <대> 등 記號를 달아 준다.

4. 教師用圖書

教師用圖書는 國民學校의 境遇에는 別架하는 것이 좋으며, 中高等學校의 境遇에는 專門의인 教育書나 圖書를 除外하고는 別架하지 않는 것이 좋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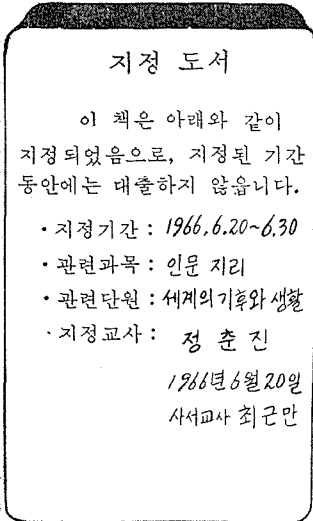
(第2圖)
代冊板의
한 보기



教師用圖書를 別架할 때에는, 請求番號 위에 'Teacher'의 <T> 或은 「교사」의 <교> 等 記號를 달아서 다른 圖書와 헛갈리지 않도록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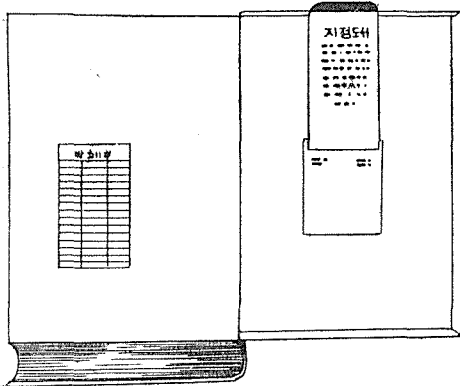
5. 指定圖書(Reserved Book Collection)

教師가 學生들에게 課題로 임히고자 하는 圖書 또는 課題解決을 爲한 參考資料로서 指定한 圖書를 別途의 書架에 配列하는 수가 있다. 이와 같은 圖書는 特殊한 目的에 提供하기 爲하여 一定 期間 貸出하지 않고 保留하여 두는 것이라고 하여 '保留圖書'라고 하기도 한다.



(第3圖) 指定圖書票의 한보기

이 境遇에는, 指定圖書票(或은 保留圖書票)를 만들어서, 책의 앞 表紙 안쪽에 클리프 로써 끼워 두거나, 책에 裝備된 북 포키트에 꽂아 둔다. 後者의 境遇에는, 指定圖書票의 길이를 길게하여 그 上端이 책 위로 튀어 나오도록 하는 것이



(第4圖) 指定圖書票를 북포키트에 꽂아 둔 모양

(第5圖) 리본식 配列의 한 보기. 이 보기에서는 第2段에 小說을, 나머지 선반에는 一般圖書를 配列하고 있다.

nf	nf	nf	nf	nf	nf
(F)	(F)	(F)	(F)	(F)	(F)
nf	nf	nf	nf	nf	nf
nf	nf	nf	nf	nf	nf
nf	nf	nf	nf	nf	nf

nf---非小說 (F)---小說

좋다.(第4圖 參考) 그리고, 3種 程度 길이가 서로 다른 票를 만들어 두면 책의 크기에 따라서 골라 쓸 수 있어서 便利하다.

6. 利用도가 높은 圖書

學校圖書館에 있어서는 8△3이나 傳記類의 利用率이 매우 높아서, 이들이 꽂힌 書架 앞은 混雜을 이루기가 일수다.

이 問題를 解決하기 爲하여 때로는 利用도가 높은 圖書를 따로 分離시켜서 스페이스의 餘裕 있는 자리에 配架하거나 리본식 配列(ribbon arrangement)을 하는 수가 있다.

리본식 配列이라 함은 單位書架別 配列法을 無視하고, 小說類(fiction)를 各 書架의 上段이나 下段이나 또는 中間 선반에 一列로 配列하고 非小說類(nonfiction)는 나머지 선반들에 普通의 配列法에 따라서 單位書架別로 配列하는 圖書配列法을 말한다. 「帶狀配列」이라고도 하다.(第5圖 參考)

이 配列法을 採擇하고 있는 圖書館이 우리 나라에는 흔하지 않으나, 學校圖書館界에서 傳統 있는 馬山女子 高等學校 圖書館이 創設 以來 卽令 이 方法을 固守하고 있다.

7. 學校種別 等에 따른 特殊配架

學校種別이나 地域社會의 特殊性에 따라서, 特殊集書를 組織하여 一般圖書에서 分離 配架하는 例를 볼 수 있다.

農業學校나 水產學校에서 農業關係 圖書나 水產關係 圖書를 別架하는 수가 있고, 果樹園地帶에 位置하는 學校가 對地域社會奉仕의 效果를 노려서 農園經營이나 園藝關係 資料를 別途 配架하는 수가 있다.

D. 圖書配架의 案內

圖書를 아무리 效果의 爲로 配列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圖書館職員의 一方的인 計劃에 不遇하다. 利用者가 그 計劃을 알 까닭이 없다. 圖書配列에 關한 案內는 이 兩者(配列計劃과 利用者) 間의 曠을 메우기 爲한 努力이라고 보면 된다.

이 曠을 메우는 우리들의 努力은 두 갈래로 나누어

진다. 計劃的인 圖書館教育을 통하여 分類法과 書架配列等의 原理를 가르치는 보다 積極的인 努力이 그 하나요, 各種 案內 디바이스(考案物)를 使用하여 말 없이 가르쳐 주는 좀 消極的인 努力이 그 둘이다.

前者에 關하여서는 이야기가 너무 길어지므로 後日에 미루기로 하고, 여기서는 後者에 關하여서만 說明하기로 한다.

1. 書架配置圖

카운터, 카아드 케이스, 버어티컬 파일링 캐비닛 등 重要 備品の 位置를 아울러 表示한 書架配置圖는 圖書配列의 案內를 爲한 始發點이 된다.

이 配置圖에는 一般圖書와 各種 特殊集書의 位置가 明示되어야 하고, 各書架에 收容된 圖書의 主類가 表示되어야 한다.

書架配置圖로서는 平面圖보다 鳥瞰圖가 더 效果的인 것이다. 그러나, 中高等學校 圖書館에 있어서는 平面圖만 하여도 充分하다.

공을 들여서 細密하게 그린 配置圖는 그만큼 效果도 클 것이지만, 將次 있을 書架의 位置變更을 考慮에 넣을 때 「簡潔」과 「明確」을 더 強調하고 싶다.

書架配置圖 곁에 글과 그림으로써 說明된 使用 分類法의 主類表를 그려 붙여 두면 圖書館職員의 親切한 마음씨를 들어 낼 수가 있다.

書架配置圖는 圖書配列案內的 始發點 구실을 맡고 있으므로, 一般的으로 閱覽室의 出入口 附近에 揭示한다.

2. 書架案內板

各書架에 收容된 圖書의 主類를 表示하여 書架의 天板 위에 올려 두는 案內用具를 書架案內板이라고 한다. (第6圖 參考) 主類의 表示는, 主類의 番號 뿐 아니라 그 名辭까지 包含되어야 하고, 보다 親切하게는 主類의 大體的인 內容(綱目의 名辭)까지도 밝힌다. 特히, 各

主類에 끼어 있는 異質的인 主題는 빠지 않고 案內하여 주는 것이 좋겠다. 이와같은 異質的인 主題는 <100·哲學>에 있어서 <<180·心理學> <<190·倫理學>, <600·藝術>에 있어서 <<690·娛樂, 運動> <900·歷史>에 있어서 <<980·地理> <<990·傳記> 따위와 같이 大體로 △8이나 △9에 많이 配定되어 있다.

書架案內板은 分類上의 主類를 案內하는 用具이지만 한 主類에 한 案內板이 있으면 된다는 것은 아니다. 主類가 여러 書架에 別치는 境遇에는 設法 많은 間隔을 두고 같은 主類案內板을 걸어 주는 것이 親切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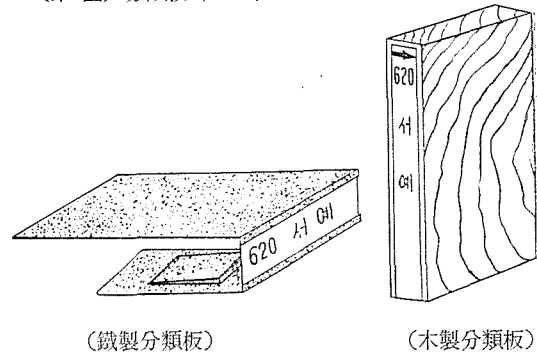
3. 分類板

分類板은 書架案內板의 案內를 받고 書架 앞에 다가선 閱覽者에게, 그가 目的하는 圖書를 보다 빨리 찾을 수 있도록 書架의 各 선반마다 設置하여 두는 細部的인 案內用具이다. (第7圖 參考)

書架案內板이 分類의 主類(10區分)를 表示하는데 對하여 分類板은 綱目(100區分)을 表示한다. 綱目의 番號와 함께 그 名辭까지 表示하여 주어야 한다.

分類板에는 木製와 鐵製가 있거니와, 前者는 主로 自家製品이고 後者는 商品으로서 市販되는 것이 普通이다. 木製 分類板은 書架의 各 선반의 맨 先頭에 세워 두며, 鐵製는 선반의 上下 兩面을 집게로써 물도록 하여 끼워 둔다. 鐵製 分類板은 書架의 스페이스를 죽이지 않고 또 멍씨도 있어서 좋으나, 그 집게의 크기가 一定하므로 두께가 다른 선반에는 쓸 수가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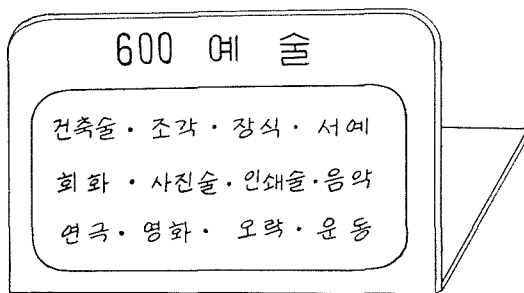
(第7圖) 分類板의 보기



(鐵製分類板)

(木製分類板)

分類板을 使用하는 主된 目的은 閱覽者를 案內하는 데 있지만, 整理가 끝나고 展示期間이 지난 新着圖書를 配架하거나 返納圖書를 復架하는 圖書館職員 또는 學生助手에게도 도움을 준다.



(第6圖) 書架案內板의 한 보기